

# 골목길 넘쳐나는 불법 주차... 대책은 없나

광주지역 주택가 골목이 몸살을 앓고 있다. 주차 방지물과 주차 차량으로 생활도로인 골목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한정된 주차공간에 내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단독주택 앞 골목길 곳곳에는 자기 땅인 듯 드림통·타이어·화분·철제구조물·볼라드 등 수백개의 온갖 불법 주차 방지물로 가득하다.

주차난으로 인해 이웃끼리 말다툼은 예사가 된 지 오래고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서를 찾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골목길 주차전쟁이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등 이면도로 불법주차문제는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자치단체는 뚜렷한 대책이 없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골목 주차전쟁...불법주차방지물 '전시장' =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등록된 차량은 57만5391대로, 전체 주차공간 52만9132면은 전체 차량의 91.9% 수준이다. 통계 수치로만 보면 언뜻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주차 문제가 해결 가능한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 타이어·화분 등 적치물도 보행 방해 이웃끼리 특하면 주차 시비 폭력 잦아 '내집앞 주차장 갖기'도 실효성 없어

일반 주택가 주차 수용률은 42.2%(24만 2850면·1만2551개소)에 불과해 주차 전쟁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다세대 원룸이 밀집한 주택가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세대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점 등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비좁은 공간에 내 차를 주차시키려면 남의 주차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 동구 산수·지산·동명동을 비롯, 용봉·운암동 주택가 도로는 타이어·벽돌·화분·의자·차선규제물·볼라드 등 온갖 불법 주차방지물로 가득하다.

◇불편 민원 신고에 주차시비 폭력 예상 = 광주 일선 자치단체 홈페이지는 “자

신의 집·상가 앞 도로를 자기 땅인양 쌓아 놓는 적치물들이 보행·운행을 방해한다”는 신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구청 뿐 아니라 경찰을 찾는 경우도 허다하다. 동부경찰은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며 마당에서 흙을 가져와 뿌린 혐의로 이모(69)씨를 조사중이다. 이웃 주민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했다며 구입한 지 20일도 안된 수입 차에 흙을 뿌려 흠집을 냈다”고 신고했다.

다음날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았다며 시비돼 목살을 잡고 폭력을 휘두른 주민들도 경찰에 입건됐다. 다른 지역에서는 주차 문제가 시비

때 이웃 주민간 칼을 휘둘렀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손놓은 자치단체...생색내기 정책 = 광주시와 일선 자치단체는 공영주차장을 늘려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현재 확보한 공영주차장 644개소(2만3654면)의 경우 이같은 취지에서 운영되는 것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광주시가 지난 2008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전형적인 생색내기 행정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난 2012년 753면을 확보했지만 2013년 601면, 올해는 322면을 확보하는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불법 주차장 단속 건수는 지난 11월 말 현재 동구 1만 8789건·서구 9만5219건·남구 1만7329건·북구 5만7540건·광산구 9만8209건 등 총 28만6906건에 달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사진=박기용기자 pboxer@



주차금지 표지판도 소용없는 불법 주차. 커다란 돌까지 등장한 장동 상점 앞길. 동명동 주택가 주민의 읍소. 타이어로 막은 불법 주차.

## 40년간 광주 시민사랑 독차지 우치동물원 '에조불곰' 박제된다

동물원측, 보존가치 등 감안 낙동강생물자원관 전시키로

지난 2월 13일 광주우치동물원에서 비보(悲報)가 들렸다. 우치동물원의 전신인 사지동물원 시절부터 동물원을 돌고 지켜온 35살 짜리 '에조 불곰'(Ezo brown bear)이 노환으로 죽었다.

1980년생인 이 불곰은 지난 1992년 5월 4일 우치동물원 개원 이전부터 광주지역 동물원의 안방마님으로 자리를 지켜왔었

다. 에조 불곰의 평균수명이 야생에서 3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불곰은 수명보다 5년 이상을 더 산 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우치동물원의 상징이자 최장수 동물인 에조 불곰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에 관람객들도 섭섭함을 금치 못했다.

고령의 나이에도 관람객들 앞에서 양손을 쭈켜세운 채 엉덩이를 좌우로 흔드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춤을 선사한 탓에 어린이 관람객들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애교 넘치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에조 불곰은 죽었지만 박제로나마 다시 태어나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비록 정지 동작과 굳은 표정을 가진 박제이지만 어린이들을 위해 낙동강생물자원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에조 불곰의 희귀성과 종 보존가치·생태 교육·상징성 등을 감안, 박제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치동물원은 지난 2월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관련 절차를 거쳐 국내 생물자원의 조기 발굴과 탐구 생물자원의 활용지원 연구 등을 하는 낙동강생물



생전의 '에조불곰' 자원관(경북 상주)에 폐사된 에조 불곰을 기증했다. 에조 불곰은 내년 상반기 안에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 목적 등에 따라 박제처리된 뒤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4 | 달뜨기 01:27  
해질 17:22 | 달지기 13:23

눈 덮힌 출·퇴근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

광주	눈	1/3	보성	비온뒤 맑	3/3
목포	눈	2/2	순천	비온뒤 맑	3/4
여수	비온뒤 맑	4/4	영광	눈	2/2
나주	눈	2/3	진도	눈	4/4
완도	눈	4/4	전주	눈	1/1
구례	눈	2/2	군산	눈	0/0
강진	눈	3/3	남원	눈	0/1
해남	눈	3/3	홍산도	눈	3/3
장성	눈	1/2			

◇비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해	서~북서	서~북서	서~북서	서~북서	
안바다	안바다	2.0~3.0	2.0~3.0	2.0~4.0	2.0~4.0	
남부	남부	2.0~4.0	서~북서	3.0~5.0	3.0~5.0	
남해	남해	서~북서	1.5~2.5	서~북서	2.0~3.0	
서부	서부	안바다(동)	서~북서	2.0~4.0	서~북서	3.0~5.0
안바다(서)	안바다(서)	서~북서	2.0~3.0	서~북서	2.0~4.0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10
빨래	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8:45	01:52
	21:00	14:18
여수	밀물	썰물
	10:14	04:23
	22:44	16:20

◇주간 날씨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	☀	☁	☁	☁	☀	☀
-5/1	-5/1	-4/5	1/5	-3/2	-2/5	-2/5

## 광주·전남 이번주 내내 눈·강추위

움츠렸던 '동장군(冬將軍)'이 다시 기세를 부리면서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주 내내 눈과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광주·전남 지역은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하면서 오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고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당분간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15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도~4도, 낮 최고기온은 1도~4도 분포를 보이겠다

며 예상 적설량(강수량)은 1~8cm(5~20mm)다.

17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2도~영하 1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르는 등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17일 아침에는 일부 내륙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다”며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내일 피의자 신분 소환

“똥공 리턴”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 전 부사장 측에 17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램프리터(비행기를 탐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경우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들

MBN <천기누설> 제작팀이 1회부터 85회까지 소개한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 특별판!

# 천기누설 약초보감

천기누설 시리즈 21세기 가정집에 꼭 상비해야 할 책!

천기누설 1~9권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서재걸·김달래·이광연 감수 | 전권 151,000원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서재걸·김달래·이광연 감수 | 정가 85,000원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및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70-7516-2069